

# 益山 新龍里 百濟土器窯址

全 榮 來\*

## 目 次

I. 序 言	IV. 가마구조의 비교
II. 新龍里土器窯址의 구조	V. 연 代
III. 출토 토기편	VI. 결 론

## I. 序 言

全北地方에서는 83년도에 高敞 雲谷里의 百濟토기요지에 이어 익산 신용리의 토기요지가 알려졌다. 백제토기연구는 도요지의 발굴이 없어 별반 진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최근에는 충북 陰城 三龍里에서도 백제초기요지가 발굴됨과 아울러, 활발한 구조연구와 토기편년의 진전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일본최대의 「須惠器」 가마지역인 大阪府 「사카이(堺)」市에 있는 「스에무라」(陶邑) 도요지와 유사한 신용리 가마터 구조는 일본 「스에키」의 원류가 백제지역에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 II. 新龍里土器窯址의 구조

신용리에서는 2기의 가마터가 발굴되었다. 미륵산 동편 해발 150미터 지점의 斜面에 11.0미터 간격을 두고 나란히 자리한다. 모두 장축방향은 동서 280도이다.

제 1 호는 길이 8.5m, 아래쪽으로부터 경사면을 파들어가다가 窯床 부분에서는 굴을 뚫은 「半地下式」이다. 狹口는 폭 1.6m, 약 2.5미터 지점부터는 「아취」형 천정이 있는 窯床으로 들어서는데, 약 1.1미터 길이의 천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窯床은 약 20미터 지점부터 20도 경사로 높아졌는데 평면은 독사머리형이다. 최대폭은 3.0미터, 측벽높이는 0.9미터 내외이다.

제 2 호 역시 반지하식인데, 전체길이 11.0미터, 분구는 길이 5.5미터, 폭 1.8미터, 요상은 「아

---

\* 全州市立博物館長

취]형 천정에 독사머리형 평면으로, 그 끝에 굴뚝자리가 있다. 입구에서는 약 10도의 경사를 이루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20도의 경사가 된다. 측벽높이는 1.7m이다.

요상에는 흙과 탄회층을 13층으로 다졌는데, 이는 요상을 수리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분구 쪽은 가장 아래층의 원바닥은 現 바닥보다 1.0미터가 낮으나, 위로 올라가면서 차츰 얇아지고 있다.

요상은 길이 5.5미터, 최대폭 3.2미터, 양측벽높이 1.7미터, 중앙천정높이 2.0미터이다.

### Ⅲ. 출토 토기편

백제의 특색있는 기형의 조합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략 다음과 같은 기종으로 구분된다.

1) 廣口壺 2) 細頸壺 3) 直口壺 4) 三足坏 5) 圈足坏 6) 無足坏 7) 蓋 8) 小形壺 9) 鉢形土器 10) 圓筒形甕形土器 등이 있다.

이곳의 특색은 圈足坏로서 숫자도 가장 많고 제 2호 바닥다진층의 맨 아랫층에서도 나왔다. 뚜껑은 손잡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손잡이는 낮은 단추형이다. 용형토기에는 쇠뿔형 손잡이가 있다. 三足坏는 둥근 발과 짝아닌 발이 있는데, 그 중에는 끝을 약간 밖으로 구부려 짐승발모양을 보이는 것도 있다. 소성도는 높은편으로 자연유가 부착된 것이 많다.

### Ⅳ. 가마구조의 비교

신용리 가마는 반지하식의 아취형 천정에 독사머리형 평면에 위로 올라가면서 경사가 진 등요에 속한다. 이러한 기본구조는, 전기한 일본의 「스에무라」에서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운곡리도요지는 같은 백제토기요지로 연대도 큰 차이 없으나, 구조는 많은 상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 아궁이터가 동쪽에 있는데, 평면은 타원형이고, 바닥둘레에 연도가 있고, 좌상측에는 타원형의 깊은 연돌갱을 설치한 특이구조였다.

바닥은 길이 6.0미터, 폭은 아랫변이 4.5미터, 윗변은 2.0미터이다. 연돌갱은 바닥길이 1.8미터, 폭 1.0미터, 깊이는 0.7미터가 남아 있다. 바닥의 경사는 10도 내외로 완만하다.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연도와 연돌갱을 설치하여 배연작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Ⅴ. 연 대

여러 기형으로 보아서 6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되나, 두 가마터의 연대나 제 2호 퇴적층의 연대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기형으로 특이한 것은 뚜껑의 단추형 손잡이인데, 이는 「스에무라」 토기편년을 보면 제 3기 곧 6세기 중반경에 해당한다. 신용리 토기편년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6세기 후반을 더 내려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VI. 결 론

필자가 83년도에 고창 운곡리요지를 처음 발굴했을 때는 백제토기요지의 선례가 없었으므로, 가마터의 구조가 백제의 보편적인 것인지 혹은 특이구조인지를 분별할 자료가 없었다. 그러나 신용리 가마구조의 반지하식, 독사머리형 평면 등의 특징이 확인됨으로써, 이 가마가 大阪의 「스에무라」요지군의 가마구조와도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 6세기의 백제는 불교와 수반된 제반 문화와 기술자를 일본에 진출시킴과 아울러 도자기제작, 工人集團도 대거 이주했던 맥락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음성군의 백제전기 도요지 발굴성과와 함께 백제토기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